

참고자료:

- [1] Gartner, "How Carriers Can Succeed With Quadruple Play", 2006. 8. 24
 [2] <http://www.starhub.com/>
 [3] <http://www.asianetnews.net/>

일본의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이용실태 동향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원 김희연
 (T. 570-4332, kimhy@kisd.re.kr)

1. 개 요

최근 일본 콘텐츠시장이 디지털 콘텐츠시장으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불법 파일교환의 문제는 콘텐츠산업의 대표적인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사)일본레코드협회(RIAJ)¹⁾는 2005년 1월에 이어 지난 7월 "2006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이용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일본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이용실태**가.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일본의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이용자 수는 2002년 68.4만 명에서 2006년 175.5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파일교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약 1,755,100명으로 추정되며, 이전에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이용자 약 4,326,600명을 합하여 약 6,081,700명이 파일교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본 것으로 조사되었다.²⁾ 이는 2005년도의 조사결과에 비해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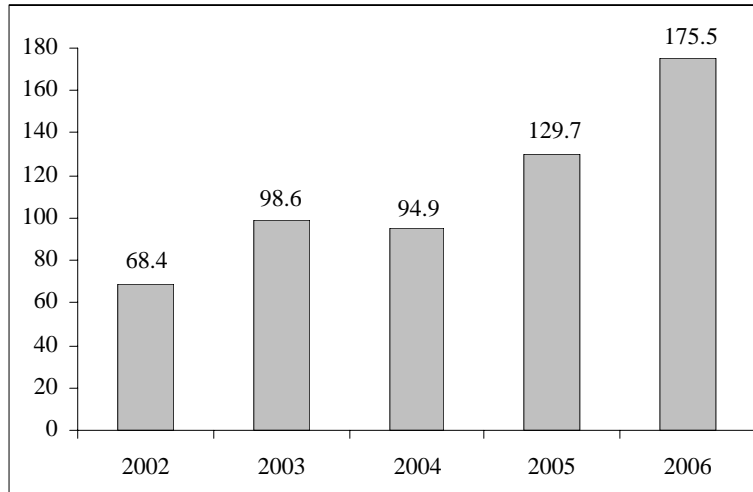
1) (사)일본레코드협회는 일본음악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1942년 설립되었으며, 2006년 8월 현재 42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2) 여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2005년 7월 이후 사용자이며, "이전에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2005년 6월 이전에 사용했던 이용자로서, 추정치는 2006 인터넷백서(일본)에서 발표한 인터넷 이용자 50,602,10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게 늘어난 수치이다.³⁾

〔그림 1〕 일본의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이용자수 추이

(단위: 만명)



나. 다운로드 파일 수

연간 다운로드 되는 파일의 수는 3억 4,000만 개로 2005년도에 비해 약 3,900만 개의 파일을 더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⁴⁾ 이용자 1인당 다운로드 받는 파일의 수는 평균 194개로 조사되었다. 이를 장르별로 나누어보면 음악관련 파일 87.1개, 비디오관련 파일 79.4

〈표 1〉 장르별 다운로드 파일 수(이용자 1인당 평균)

(단위: 개)

장르별 연도	음 악	비디오	소프트웨어	사진·이미지	문 서	합 계
2006	87.1	79.4	8.7	11.2	7.8	194
2005	95.2	90.5	5.2	40.6	4.8	236

주: 반올림된 수치로 합계 불일치

3) 200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일교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1,297,100명, 이전에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3,302,100명으로 조사되었다.

4) 연간 다운로드되는 파일 3억 4,000만개의 파일 중, 1억 5,000만개의 파일(전년대비 2,900만개 증가)이 음악파일인 것으로 나타났다(2006 문화콘텐츠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

개, 소프트웨어 8.7개, 사진·이미지관련 파일 11.2개, 문서관련 파일 7.8개로 나타나 주로 음악 및 비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다. 파일 공유경험

현재 이용자의 32.6%는 파일을 공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용자 1인이 지난 1년간 파일을 공유한 평균 회수는 160회로, 이를 장르별로 나누어보면 음악관련 파일 92.6회, 비디오관련 파일 55.9회, 소프트웨어 3.7회, 사진·이미지관련 파일 3.3회, 문서관련 파일 4.4회로 나타났다.

〈표 2〉 장르별 파일 공유 경험회수(이용자 1인당 평균)

(단위: 회)

연도 \ 장르별	음 악	비디오	소프트웨어	사진·이미지	문 서	합 계
2006	92.6	55.9	3.7	3.3	4.4	160
2005	105.5	43.8	1.4	14.8	0.2	166

주: 반올림된 수치로 합계 불일치

라. 저작권승인 필요한 다운로드 파일 비율 및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사용중단 이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한 파일 중 음악파일의 91.1%, 비디오 관련 파일의 86.2%, 소프트웨어의 58.2%는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⁷⁾ 또한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보안 또는 바이러스문제”를 이유로 든 응답자들은 2005년 31.3%에서 2006년 46.2%로 증가한 반면, “저작권 위반 또는 기타 이슈들”을 이유로 든 응답자들은 2005년 30.5%에서 2006년 26.4%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결어: 불법파일공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6년 9월 25일 도쿄지방법원은 3개의 주요 ISP사업자에게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음악파일을 업로드한 19명의 이름과 주소를 공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현재 ISP사업자들로부터 이용자 신상명세를 받은 (사)일본레코드협회(RIAJ) 산하 14개 고

5) 다운로드 받은 파일 수는 2005년도 조사결과 236개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 현재 이용자의 파일공유경험은 2005년도 조사결과 35.5%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 2005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의 90%, 비디오 관련 파일의 86%가 저작권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회사들은 불법 업로드로 인한 피해액을 이들 불법이용자들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이처럼 불법파일공유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레코드협회는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이용자에 대해 인스턴트 메시지를 송부하는 등 불법복제 및 불법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 계몽 활동을 펼치고 있다.⁸⁾

참고자료:

- [1] “2006 File-sharing Software Users Status Survey Summary Report”(2006. 7. 25)
(<http://www.riaj.or.jp/e/whatsnew/20060725.html>)
- [2] “Court ordered ISPs to disclose 19 user names and addresses, For illegal uploading of music files on P2P”(2006. 9. 25)
(<http://www.riaj.or.jp/e/whatsnew/20060925.html>)
- [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문화콘텐츠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 (2006. 9. 18~19)
- [4] <http://www.riaj.or.jp> 외 각종 웹사이트

8) 2004년 3월 ‘주의환기’메시지에서 2005년 8월부터는 ‘경고’메시지로 변경하였으며, 약 1,200만 통의 인스턴트 메시지를 송부하였다(2006 문화콘텐츠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